# "구내식당 대신 지역식당 이용하세요"

나주시, 이전 공공기관에 '구내식당 지정 휴무제' 참여 요청 한전KPS 등 4개 기관 참여…다른 공공기관 동참 노력 필요

빛기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 신도시 내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 내식당 지정 휴무일을 확대하는 등 지역상 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.

5일 한전KPS(사장 김범년)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사 '구내식당 지정 휴무일'을 확대해 시행하 기로 했다.

한전KPS는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마지 막 주 수요일 1회 점심시간 구내식당 휴무 일로 지정, 직원들이 지역 내 상가에서 점 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. 이어 이 날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식사 역시 구내

식당 휴무일로 지정해 직원들의 지역식당 이용을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.

현재 한전KPS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 원은 500여명이다. 직원들이 구내식당 지 정 휴무일에 맞춰 인근 상권 음식점을 이 용할 경우 연간 9000만원 상당의 매출 증 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한전KPS 측 의 분석이다.

이밖에 한전KPS는 지난해 11월부터 본 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외식을 권장하는 '지역사랑 점심 한 끼'캠페인을 펼치고 있 으며,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해 11월 로컬푸드 공급확대 업무협약을 전 남도, 나주시 등과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또 이밖에 나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'구내식당 지정 휴무제'에 동참 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한전KPS 를 포함해 총 4개 기관이다. 16개 기관 중 한전KPS, 농식품공무원교육원, 농수산식 품유통공사(aT), 한전KDN 등이 참여하

우선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간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 구내식당 휴무 에 들어가고, 교육이 없는 1·2·8월에는 매 주 수·금요일 저녁시간 구내식당 문을 닫 기로 했다.

aT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구 내식당 문을 닫고 있으며, 징검다리 휴일

이 있을 경우 하루 전 평일 저녁시간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.

한전KDN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 녁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.

하지만, 나머지 12개 공공기관들은 동참 하지 않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.

나주시 관계자는 "16개 공공기관의 전체 근무 인력 7000여명이 매달 한 차례씩 구 내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 연간 6억7000만원 가량의 매 출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"며 "다 른 기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중으로,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서도 노력 중이다"고 말했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##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'외면'

### 광주·전남 21.1%···평균 이하

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목표 를 초과달성했지만 전국 타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율이 낮아 이전 기관 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나온다.

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이 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율을 보면 빛 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 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인 13개 기관 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1.1%였다.

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없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 용 의무화 대상은 총 1698명으로, 이 가 운데 지역인재는 359명이 채용됐다.

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 난해 목표치인 18%는 초과달성했음에 도 전국 평균 채용율에는 미치지 못해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실제, 전국으로 보면 지난해 이전 공 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총 6076명으 로, 이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3.4%를 기록했다.

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 면 부산이 32.1%로 가장 높았으며, 부 산을 포함한 강원(29.1%), 대구 (27.7%), 울산(23.8%), 경북 (23.5%) 등 5개 지역은 평균 (23.4%) 이상을 기록했다.

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

2018년 지방 이전 공공기급 - . 대상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 전체 평균 23.4% 2018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부산 11개 27.7 울산 7 23.8 23.5 21.9 21.2 20.2 경남 10 19.5

자료/국토교통부 **ወ**연합뉴스

19.4

반면에, 충남(21.9%), (21.2%), 광주·전남(21.1%), 경남 (20.2%), 전북(19.5%), 제주 (19.4%)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하회했 다. 세종은 예외규정인 연구기관 위주 로 구성되어 있어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

국토교통부 관계자는 "지역이 소멸위 험으로부터 벗어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"며 "지역인재 채용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 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# "근로자 안전점검 철저하게" 농어촌公 전남, 관리 강화

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(본부장 윤석군)는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18개 지사 직원과 현장대리인 등 270명을 대상 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마치 고 본격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5 일 밝혔다.

안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순회교육을 통해 현장근무자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올 해 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하 고 토론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.

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이달 부터 사전예고 없는 상시 불시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.

점검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 용과 비계 및 동바리 설치상태,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와 벌점, 경 고장 부과 등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. /박기웅 기자 pboxer@

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용역근로자들이 정규직 채용 관련, 공무직 임용식 이후 서석진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〈KCA 제공〉

###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

### 용역근로자 66명 전원 채용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KCA·원장 서석진)은 지난 4일 임용식을 통해 미화, 경비, 시설관리 분야의 용역근로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.

KCA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 자 정규직 전환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 난달 15일에 지방본부 16명을 채용, 3월에 본사 17명, 빛마루 방송지원센터(이하 빛 마루) 33명을 채용했다.

이번 채용을 위해 KCA는 지난 2017년 부터 노·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정규 직 전환 대상과 전환방법을 논의한 바 있

이를 통해 2017년 기간제 계약직 7명, 2018년 파견직 근로자 50명, 올해 용역근 로자 66명 등 비정규직 직원을 전원 정규

직으로 전환했다.

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의 빛마루 운영 기관 단일화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콘텐츠 진흥원(KOCCA)의 업무가 KCA로 이관 되면서 빛마루의 용역근로자도 정규직으 로 전환됐다.

서석진 원장은 "비정규직의 전환대상과 전환방식 결정에 있어 노사당사자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"며 "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aT, 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사업자 모집합니다



지난해 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시험수출에 성공한 국내 기업의 제품

# 통관부터 시장진출까지 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·사장이병 호)는 오는 8일까지 '2019 중국 원스톱 (One-Stop) 시험수출' 지원사업자를 모 집한다고 5일 밝혔다.

중국 원스톱 시험수출 지원사업은 중국시 장 진출을 희망하나,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 지통관과 검역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초보 중소농식품 제조업체를 위해 aT 중국지사(베이징, 상하이, 칭다오)가

연결한 현지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준비 부터 시장진출까지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 착지원해주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이다.

지난해 처음 도입돼 요거트, 유기농과채 주스, 홍삼차 등을 생산하는 17개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57개 품목 전체가 시험수출 에 성공, 11개 업체는 중국으로의 첫 수출 성과를 올려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했다.

특히, 올해는 지원업체와 예산, 지원대 상권역도 확대될 예정이다. 총 30개 업체

를 대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, 칭다오 등 각 권역별 상이한 통관과정에 대해 기업별 맞춤지원이 강화되는 한편, 선정된 업체는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통관검역부문, 내륙 물류부문, 시장 개척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.

한편, 해당 지원사업 신청은 aT 수출업 체종합지원시스템(http://global.at.or. kr)을 통해 지원항목 확인 및 접수가 가능 하며, 관련문의는 이메일 (onestop@at.or .kr)로 하면 된다. /박기웅기자 pboxer@

# 한전KDN, 빛가람 힐링 콘서트 개최

### 분기별 운영 지속

한전KDN(사장 박성철)은 최근 본 사 빛가람홀에서 직원들의 정서 안정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'한전 KDN과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' 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.

이번 콘서트에는 세계경제포럼인 다 보스포럼 '차세대 글로벌 리더'에 선정 된 국내 대표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강사로나서 '4차 산업혁명시대,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통찰'을 주제로 강연했다.

임직원과 지역주민, 학생 등 400여명 이 참석했으며 강연이 끝난 뒤 '정재승 교수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및 저자 사 인회'도 진행됐다.

한전KDN 관계자는 "한전KDN과 함 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는 3회째를 맞았다"며 "광주·전남 지역주민 대상 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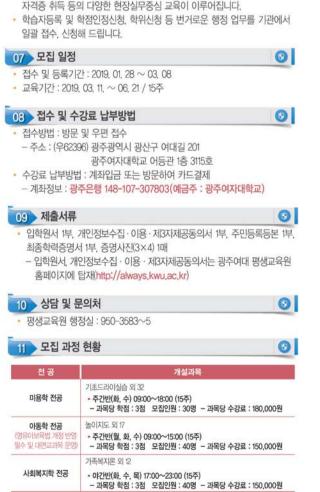


'한전KDN과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 서트'에서 정재승 교수가 강연을 하고 〈한전KDN 제공〉

료강좌로 분기별 명강사를 초빙해 지속 적인 운영을 이어갈 계획"이라고 말했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### ■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모집 이 학점은행제란? 0 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**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**입니다. 02 지원자격 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03 학점은행제가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•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•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• 중도에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•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•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미용학 전공(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, 미용사 면허증 취득) 사회복지학 전공(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,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) • 아동학 전공(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,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) 05 학습자 특별 혜택 0 평생교육원 비학위과정 수강시 30% 할인 혜택 • 등 · 하교시 스쿨버스 이용 국가유공자 자녀 100% 장학 혜택 • 광주여자대학교(원) 재학생 및 졸업생 30% 장학 혜택 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업무 대행 및 무료 학습 설계를 비롯한 폭넓은 행정지원 서비스 06 오프라인 수업의 특징 0 다양한 현직 실무 경력을 가진 교수의 실무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실습과목에 대해 수강생 우선 배정으로 실습과목 수강이 편리합니다. •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.



• 전문적인 지식을 비탕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강, 체험학습, 전공 관련

